

2. 마지막 일들 - 2.

신자의 죽음

(DEATH OF BELIEVERS)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3)

* * *

1. 신자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는다.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두려움은 죽음이다. 사람 스스로가 인생을 지배하며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죽지 않고 생존해야 하는 현실’이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 노릇을 한다(히 2:14-15).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의미하듯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죽음을 무서워해서이다. 마귀는 이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세력을 행사한다. 사탄이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신 32:39; 계 1:18). 다만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을 죄에 매이도록 미혹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롬 6:16, 23).

롬 6:16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이다(고전 15:22). 하나님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다.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짓기 훨씬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엡 1:4). 하나님은 이들이 아담을 통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들과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셨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이 되었고(창 6:3),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류는 육신으로 번성해 갈 뿐이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요 3:6-7)고 하셨듯이, 아담에게서 아무리 많은 육신들이 나온다고 해도(마 13:27, 38), 오직 거듭난 사람들, 즉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생령(=산 자)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들도 땅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신을 입고 나타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근원으로 둔 육체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둔 택한 백성을 반드시 땅의 여정 중에 부르셔서 택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시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마침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요 5:24-29; 히 1:1-2). 그러므로 육신으로나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마 7:21).

요 5:24-29; 마 7:21 _____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의 절정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근원이고 대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딤후 2:5) 이루신 모든 일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즉, 구약의 하나님 백성은 죄로 부정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동물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으로 죽고, 육신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롬 6:4-9).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을 영원히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엡 2:12-13; 요일 3:5-6).

요일 3:5-6 _____

이것은 사탄에게 치명적 사건이다.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이 막강하게 휘두르는 사망의 권세, 즉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미혹의 힘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 붙들리게 만들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죄로 정죄를 당하지 않으며(롬 8:1),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생’에 매이지 않고, ‘한 평생 사는 일’에서 해방되어 벌써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히 2:13-15).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죄 사함의 내용이고, 용서의 위력이다(골 1:13-14).

히 2:13-15; 골 1:13-14 _____

Q.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담대히 처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 23:4; 잠 14:32 _____

* * *

2. 신자는 죽지 않고 잔다.

성경은 신자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묘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한다.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였고(막 5:39),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하셨다(요 11:11). 예수님이 땅에서 생명을 다시 살리신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잔다’는 표현이 쓰인 것이 아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에 “자니라”(행 7:60)고 말하고 있다.

신약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잔다’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예언할 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단 12:2)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신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말할까? 그것은 신자의 죽음이 불신자와는 달리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원한 날에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어남은 무의식에서 의식을 얻는 의미가 아니다. 죽는다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듯이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서 보호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며, 서로 대화를 한다(눅 16:22-25).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신자들이 땅에서 가졌던 정체성을 서로 알아본다는 뜻이며(막 9:4; 고전 13:12),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성경은 신자가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다(창 25:8).

자고 있던(=안식하던) 신자들이 깨어나는(=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다(살전 4:13-17). 이 때 하나님은 죽은(=자고 있던) 신자들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땅에서 살아 남은 자들도 죽은 신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이때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몸’으로 변화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살전 4:16-17). 성경은 눈 깜짝할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고전 15:51-54).

고전 15:51-54 _____

Q. 우리가 주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3. 신자의 죽음은 축복이다.

신자에게 펼쳐지는 하늘의 현실이 어떠한 지 알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낙원을 보고 온 사람이다(고후 12:2-4). 그가 거기서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 가히 한 말도 이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음 이후를 얼마나 선호했는지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빌 1:23)는 그의 고백을 통해 느껴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죽음 후에 의인에게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딤후 4:6-8).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갔다(빌 3:14). 신자의 죽음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실제 이유가 바로 신자에게 행위에 따른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동의하신 바이다(계 14:13).

하지만 죽음이 더 좋고, 신자의 소망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고후 5:8)이라고 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백성도 심한 고통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기도했던 의인들도 있었다(왕상 19:4; 욥 7:15).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인을 죽이든, 자기 목숨을 끊든, 살인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계 22:15). 환난에 엮드러지는 자는 악인이고, 의인은 죽을 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다(잠 14:32).

Q. 주 안에 있는 내가 땅에서의 환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을 오히려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 14:13 _____

* * *

기도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영원한 본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땅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를 고대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이 먼저 온다고 해도 매일매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